불자세상보기

권혁주, 불꽃처럼 살다간 천재 음악가



강형진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단장

지난 10월 12일 아침, 후배작곡가 차은선 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는 전화로 "선배님, 권혁주 씨가 사망했습니다"라는 비보를 전했다. 너무 놀라고 믿기지 않아 즉시 김의명 교수에게 연락했다. 통화연결음이 울리는 그 짧은 시간에 오보이길 바라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전화를 받은 김의명 교수는 "혁주 소식 듣고 연락했어요?"라고 답했다. 현실은 잔혹할 만큼 냉정했다.

지난 여름, 강원도 인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만해축전준비위원회가 지원하는 '2016 설악바이올린학교 & 음악캠프'에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할 때 권혁주 씨는 팔꿈치에서 고름이 나와 가을쯤 수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 등 연주 일정이 많아 그러잖아도 걱정하고 있던 터였다.

천재 권혁주를 처음 접한 것은 그가 세계적인 콩쿠르에 여러 차례 입상하고 러시아와 독일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면서다. 니르바나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불교계에도 공연 전문기획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카사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하면서 사업이 확장되었고, 평소에 존경하는 김의명 교수가 이끄는 JK쳄버오케스트라를 관리했다. 권혁주는 JK의 악장이자 솔리스트로 활동하면서 더욱 가까워 질 수 있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불평을 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개런티를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로지 묵묵히 연주만 했다.



10월 12일 작고한 권혁주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늘 말이 없었다. 눈을 마주치는 정도가 인사의 표현 전부다. 과묵하고 말이 없지만 수줍고 사슴과 같이 순수한 눈망울을 가졌다. 불교계에서 전문적인 음악 인재를 찾기가 매우 힘들고 그나마 이웃 종교인들은 활동을 꺼려하는 실정이기에 공연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고충이 많다.

권혁주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 칠장사 산사음악회, 니르바나오케스트라의 아프리카 여성 돕기 '소녀' 자선음악회, 쿠부치 사막화 방지 환경 음악회 등 중요한 공연에 함께해 왔다. 작년부터 실시하는 만해축전의 일환인 청소년을 위한 설악바이올린학교에 주요 강사로서 활약해 왔다.

음악과 참선은 유사점이 많다. 함께하기도 하고 혼자하기도 한다. 길 없는 길을 혼자서 무소의 뿔처럼 간다. 냄새도, 형체도, 색깔도, 답도 없는 길을 선지식의 가르침을 참고삼아 가다가 결국은 그마저 버리고 가야 하는, 그래서 지독한 자기와의 싸움이다.

권혁주 역시 유복하지는 않았다. 다만 주위에 한국 바이올린계를 이끄는 스승들이 있었다. 스승들의 도움으로 성장했던 그는 '모든 것을 언제나 대중에게 회향하리라'는 서원을 실천했다. 어떤 공연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디든 찾아갔다. 그는 마지막까지 공연을 준비하며, 불꽃처럼 자신의 생을 살았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한국음악계의 대가들이 줄지어 문상했다. '마지막 모습에서 그 사람의 삶을 알 수 있다'는 누군가의 말을 상기한다면 권혁주가 가지는 한국 음악계에서의 위치는 매우 컸다.

수많은 불자들도 그의 공연 때마다 환호했다. 이번 비보에 많은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생각보다 많은 팬 층이 형성돼 있음을 실감했다. 이제는 권혁주를 더 이상 공연장에서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권혁주 영가시여 이제 이승의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마음의 짐을 훌훌 버리고 평안히 극락왕생 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 "좋은 스승에게 배운 많은 가르침들을 대중에게 회향했던 혁주야 네가 벌써 그립구나"

기자 칼럼

교수 갑질은 범죄행위, 퇴출은 당연



신성민
취재부 차장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에 관공서와 언론계 등은 시행 전부터 행실에 조심을 기해 왔다. 하지만, 교수 사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대학가가 비위로 얼룩지고 있다. 다른 것도 아닌 교수들의 갑질들 때문이다. 성추행부터 경비원에 대한 막말, 연구비 횡령까지 '목불인견(目不忍見)',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다. 그것도 불교 종립인 동국대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그렇다.

최근 먼저 문제된 것은 졸업한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A교수다.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은 계속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교수는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갔다가 경비원 2명이 제재하자 욕설과 함께 막말 퍼부었다. 그는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넌 때려도 개값도 안 돼서 못 때린다. 어디 교수에게 덤비냐"는 등에 막말을 쏟아냈다.

횡령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한 교수는 정부 지원 연구비 8억여 원을 착복해 구속됐고, 또 다른 교수는 학생 장학금을 가로채고, 논문 심사비 200만 원을 요구해 동국대 인권센터에 제소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0월 18일 열린 회의에서 동국대 측에 진정성 있는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도 성토가 잇달았다. 위원 우봉 스님은 "언론 보도에 잇따른 사건이 발생함에도 동국대가 해당 교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반응을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며 "징계를 비롯해 원칙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현재 학교 당국의 입장은 "교수들의 비위가 잇달아 터지는 것은 학생이 지도교수를 교체할 수 있는 지도교수 자율 선택제를 시범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불이익을 우려해 공개를 꺼려한 학생들이 교수들의 문제를 일제히 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학교수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사회의 지성을 선도하는 지식인이다. 또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대중들의 존경과 기대를 받는 만큼 교수는 일반인보다 높은 지성과 인성, 윤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교'를 기반으로 한 종립대학에서 단기간에 이 같은 비위가 불거지는 것은 동국대 교수 사회의 자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학교 당국도 마찬가지다.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제도 때문에 교수 비위들이 나왔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그런 변명이 면죄부도 될 수 없다. 그간 수년간 관행처럼 이뤄져왔던 교수들의 '갑질'들을 내부 구성원들이 음양으로 쉬쉬하고 넘어갔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제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갑질'은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절대 될 수 없다. 동국대가 정말로 인권대학을 표방한다면 현 사안을 면밀히 조사하고, 비위가 확인된다면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 암덩어리는 적출해야 하고, 불똥은 털어내야 한다.

社說

지진·태풍 피해 사찰 어려움 함께해야

9월 12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5.8지진은 곳곳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이후 10월 5일 태풍 차바의 울산 강타까지, 이 지역 일대가 입은 피해는 막심했다.

지진과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한달 뒤 지역 사찰의 어려운 현실을 돌아보았다.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다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복구가 문화재를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계종은 1차적으로 피해조사단을 파견했지만 문화재 피해와 건물 피해 등의 조사에만 국한됐다. 지자체의 사찰을 대상으로 한 복구 지원도 일부에 국한돼있다. 11월부터 문화재 복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지만 진입로 유실 등의 피해복구는 더딘 상황이다.

사찰 관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참배객들마저 대폭 줄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경주 기림사의 한 스님은 참배객이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경주 분황사의 경우 지난해만해도 한창 오던 수학여행이 전체 취소되기도 했다. 지역 사찰들은 참배객들이 줄어들까 언론에 보도되는 것까지 꺼렸다.

불교계는 그동안 다양한 재난재해에 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자비실천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 사찰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이 지역 사찰들은 불교계에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자원봉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지역 사찰들은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지역 사찰의 어려움을 불교계가 함께 나누고, 자비행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때이다.

기업가의 문화재 환수 원력에 박수를

일본에 반출됐던 고려불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가 윤동한 ㈜한국콜마홀딩스 회장의 헌신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14세기 중엽의 작품이라니 약 700년만에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윤 회장은 올해 초 재일교포 고미술사업자에게 사재 25억원을 출연해 작품을 구입했고, 문화재청의 자문을 거쳐 이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이번 기증이 더 의미를 더하는 것은 여태까지 국립박물관에는 수월관음도가 단 한점도 없었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에는 5점의 수월관음도가 사립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윤 회장은 어릴 적 역사학자나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형편상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렵게 창업해 현재의 회사를 이룬 후에는 역사와 인문학을 경영에 접목하려 노력했다.

수월관음도 환수를 마음먹은 것도 인문학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프랑스 기메박물관에서 해설 담당자가 고려불화를 설명하면서 '한국에는 없는 희귀한 그림'이라고 설명할 때 자존심이 상했다.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고려불화라는 귀중한 문화재를 되돌리고 싶었다"고 회자했다.

또한 "문화재는 함께 향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증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문화재들을 기증하겠다"고도 했다. 향후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만들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번 민간 기업과 정부가 만든 문화재 환수와 기증의 모범 사례이자 기업이 사회로부터 창출한 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의 원력에 박수를 보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지리산과 덕유산 일대의 자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선조들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지리산 다슬기 진 골드로 생활의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신장과 시력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다슬기를 주 재료로 하여 맑은 지리산 계곡물과 함께 각종 약재를 함께 넣어서 정성껏 달였습니다. 장시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과 수행에 지친 분들께 원기를 복돋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 입니다.

제품문의 : 02)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125,000원 (무료배송)